

이혼요구장애인아내 殺害

20代영장 犯行위장위해 婦人 심장등 기증

【고양】경기도 고양경찰서는 3일 이혼을 요구하는 지체부자유자인 부인을 숨용차도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해 신고하려던 金在元씨(26·김류터그래픽 디자인·고양시화전동 511의29)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구랍26일 새벽 1시반경 고양시성사동 신원리아파트 103동에 사는 둘째동서전에서 숨용차를 마친 뒤 서울로 8623호 트럭을 숨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저가살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인 차모씨(25)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 인도로 걸어가던 차씨를 이 아파트 앞길에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시켰다.

金씨는 차씨가 중상을 입은 후 5일만인 같은날 31일 오후 7시15분경 숨지자 경찰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허위신고를 했으나 시체에 난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영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결과 金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부자유자인 부인 차씨의 장애인용 트럭으로 차로 차씨를

치어 쓰러뜨린 뒤 그대로 차를 몰아 갈아버렸으며 이같은 범행을 위장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차씨의 눈과 심장을 기증했었다는 것.

금괴 36kg 밀수 40代선원 구속

【부산】부산부세관은 3일 홍콩에서 금괴 36kg(시가 3억6천만원)을 밀반입한

홍아해운(주) 소속 컨테이너선 오로라호(4천5백t) 조리장 金鍾月씨(45·부산진구부암1동)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경 홍콩에서 교포李진방씨로부터 금괴 36kg을 운반해주면 7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금괴를 배의 앞창고에 숨겨 부산항에 들어와 밖으로 운반하려 했다.